



3월 5주차 |

# 주간 인도네시아

## 시장 동향 및 이슈





## 주간 이머징 증시 동향

구분	주가지수	3.26	3.19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VN	1,162.21	1,194.05	↓ -2.67	↑ 5.29	662.26 '20/03/30	1,200.94 '21/03/18
인니	자카르타종합	6,195.56	6,356.16	↓ -2.53	↑ 3.62	4,338.90 '20/03/26	6,435.21 '21/01/13
인도	SENSEX	49,008.50	49,858.24	↓ -1.70	↑ 2.63	27,590.95 '20/04/03	52,154.13 '21/02/15
중국	상해종합	3,418.33	3,404.66	↑ 0.40	↓ -1.58	2,734.52 '20/04/01	3,696.17 '21/02/19
	심천종합	2,214.81	2,194.91	↑ 0.91	↓ -4.92	1,657.55 '20/03/30	2,468.66 '21/02/19
홍콩	H	10,966.06	11,283.92	↓ -2.82	↑ 2.12	9,281.52 '20/09/29	12,228.63 '21/02/17
	항셩	28,336.43	28,990.94	↓ -2.26	↑ 4.06	22,930.14 '20/05/22	31,084.94 '21/02/17
한국	KOSPI	3,041.01	3,039.53	↑ 0.05	↑ 5.83	1,685.46 '20/04/01	3,208.99 '21/01/25



## 주간 이머징 국채 금리(10Y) 동향

구분	3.26	3.19	전주대비(bp)	전년말대비(bp)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2.43	2.51	↓ -7.50	↓ -14.90	2.20 '21/01/15	3.60 '20/04/17
인도네시아	6.71	6.80	↓ -8.70	↑ 82.70	5.89 '20/12/30	8.21 '20/04/06
인도	6.12	6.19	↓ -7.00	↑ 25.80	5.75 '20/05/28	6.50 '20/04/13
중국	3.20	3.24	↓ -3.90	↑ 5.20	2.48 '20/04/08	3.36 '20/11/19
한국	2.01	2.12	↓ -10.50	↑ 28.80	1.28 '20/07/30	2.16 '21/03/18



## 주간 이머징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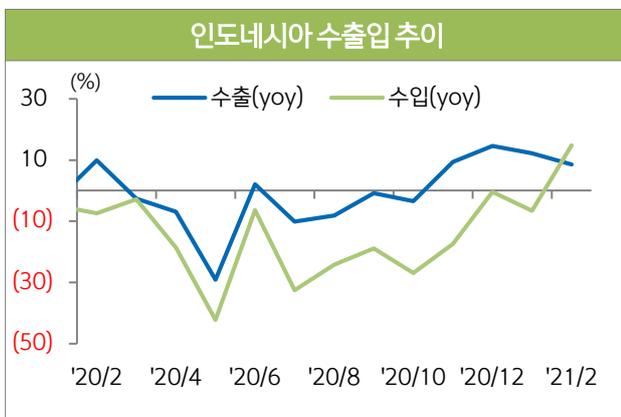
구분	3.26	3.19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달러-동 (VND)	23,076.00	23,064.00	↑ 0.05	↓ -0.10	22,970.00 '21/02/08	23,637.00 '20/03/30
달러-루피아 (IDR)	14,418.00	14,408.00	↑ 0.07	↑ 2.62	13,878.00 '20/06/05	16,495.00 '20/04/02
달러-루피 (INR)	72.52	72.52	↓ 0.00	↓ -0.76	72.33 '21/02/24	76.87 '20/04/16
달러-위안 (CNY)	6.54	6.51	↑ 0.49	↑ 0.21	6.43 '21/01/29	7.17 '20/05/27
달러-원 (KRW)	1,129.33	1,131.03	↓ -0.15	↑ 3.94	1,081.81 '20/12/04	1,243.91 '20/0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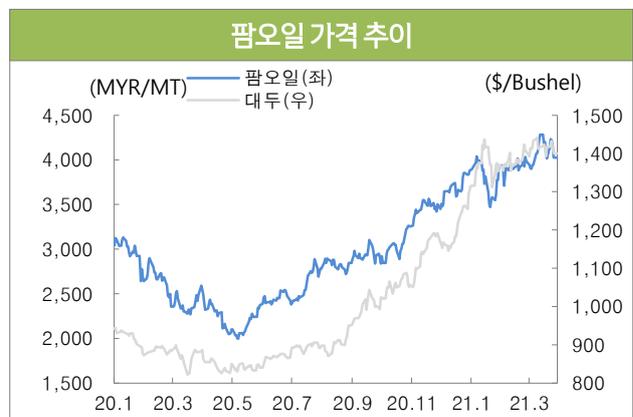
## 인도네시아 경제 및 금융시장 이슈

### ❖ 인도네시아 주요 수출 원자재 강세 흐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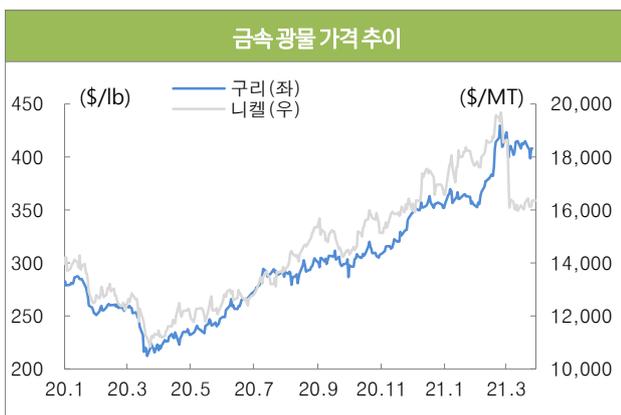
- ▶ 인도네시아의 2월 수출은 전년대비 8.56% 증가하며 4개월 연속 전년대비 증가를 이어갔으며, 수입은 2019년 6월 이후 14개월 만에 전년대비 증가로 전환되었음.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앞섰지만 2월 무역수지는 20.1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음. **인도네시아는 원자재 의존적인 수출 구조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지난해 이후 수출 개선은 코로나19로 인한 원자재 수급 차질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것의 수혜를 보고 있음.**
- ▶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 생산 및 수출국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팜 및 팜오일의 경우 지난 겨울 동안 지속되었던 라니냐의 여파로 중남미의 대두 작황이 악화됨에 따라 식물유 작물의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었고 이에 따라 팜오일 가격은 2008년 이후 최고치에 육박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음. 북반구가 봄으로 접어들면서 라니냐의 영향은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에 따라 글로벌 소비재 수요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팜 및 팜오일 가격이 당분간 양호한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 구리 및 니켈 가격은 글로벌 주요국들이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그린 뉴딜 인프라 투자를 선언하였고 전기차 2차 전지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어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니켈의 경우 중국 업체의 기술 발전을 통한 대규모 생산 계획 발표에 조정을 받았지만 지난해에 비해 여전히 양호한 가격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부양책 발표는 금속 가격의 강세를 지지할 요인임**
- ▶ **석탄의 경우 각국의 탄소감축 노력으로 부진한 흐름이 이어져왔지만 글로벌 철강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석탄 수요도 회복되며 가격이 반등하고 있음.** 철강제품의 수급 차질로 인해 제철용 석탄 수요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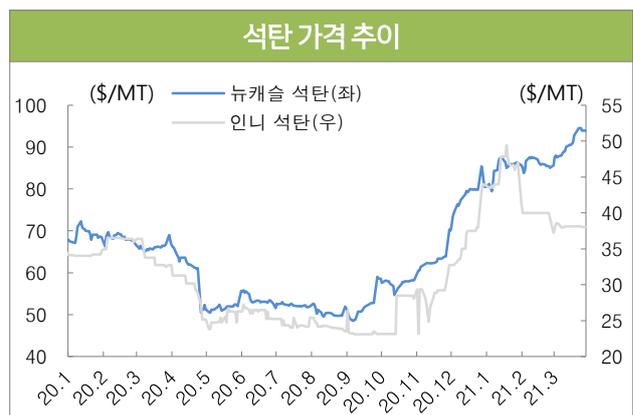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 주요 뉴스





## 세계은행,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성장률 전망 발표



### ❖ 요약 및 시사점

세계은행은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성장 전망을 발표하면서 인도네시아에 대해 올해 4.4%의 성장 전망을 유지하였음. 중국 및 베트남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겠지만 관광산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관광산업이 2023년까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 어렵고 해당 산업 종사자의 빈곤 문제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임

- ▶ 세계 은행은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이 코로나 대유행으로부터 3단 탈출을 시도할 것이라면서 안정, 회복, 성장을 위해 경제 및 재정 정책들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하였음.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과 강한 봉쇄 조치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회복에 있어서 차별적인 흐름을 보일 것 같다고 강조하였음. 이러한 차이들은 교육, 산업계, 환경정책 및 지역의 잠재력에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학적 요인들에 따른 차이로 보았음
- ▶ 세계은행은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내에서 중국과 베트남만이 V자 회복 경로를 보이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과 세계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은 베트남이 각각 올해의 성장률 8.1%, 6.1%를 기록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성장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았음.
- ▶ 동아시아 및 태평양 다른 국가들에서는 5% 수준의 성장을 보이면서 코로나19 이전에 못 미칠 것으로 보았음. 충분히 수출 산업을 회복해내지 못하고 특히 관광에 의존하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회복에 어려움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2월부터 시작된 정치 경제적 혼란을 겪고 있는 미얀마의 경우에는 올해 -10%의 역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여 지난 성장 전망 -2% 대비 더 큰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보았음.
- ▶ 중국을 제외한 지역 내 GDP 성장률 전망은 4.4%로 예상하였으며, 인도네시아는 4.4%, 말레이시아는 6%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근접하게 회복할 것으로 보았음. 태국은 3.4%, 필리핀은 5.5%로 2022년까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 할 것으로 보았음.
- ▶ 지역 내 소규모 국가들의 경우 관광업 의존도가 높은 태평양 일대 섬나라 국가들의 경우에는 절반 가까운 나라들이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였음
- ▶ 중국을 포함한 지역의 전체 성장률은 7.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여 중국이 지역의 성장률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지역 내 거대 경제권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5개 국의 2021년 성장은 4.8%, 2022년은 5.1%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뒷면계속)

- ▶ 전체 성장률 전망과는 별개로, 지역 내 소득 격차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었음. 구성원들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직을 한 것, 봉쇄조치로 인해서 소득이 줄어든 것 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망에서의 차이 그리고 디지털 기술 격차 등도 지역 내 격차를 높이는 이유가 되고 있음. 이에 덧붙여 글로벌 농산물의 수급 차질로 인한 식량 안보 차원에서의 어려움도 가난한 국가들에서의 물리적, 인적 자본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은 민간 부문의 소비를 줄이게 되고 구성원들이 학습 공간으로부터 이탈하게 되면서 더 많은 향후 성장 잠재력을 줄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세계은행은 지적하였음.
- ▶ 지역 내에서 3200만에 달하는 인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빈곤층으로 전락하여 중상위권 국가의 기준인 2020년 1일 5.5달러 수준에 못 미치는 소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관광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의 관광 산업 붕괴와 수출 약화로 인해서 13개 개도국에 걸쳐 -3.5%의 역성장이 발생하고 3,800만명의 인구를 빈곤층으로 이끌고 있다고 분석하였음.
- ▶ 이러한 빈곤의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지면서 국내 폭력 행위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고 라오스의 응답자의 25%,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응답자의 83%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성들이 더욱 폭력에 노출되고 있다고 말하였음.
- ▶ 세계은행은 지역 내 여러 국가들 가운데 그래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이 여전히 확진자수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하였음. 코로나19의 관리 및 백신의 접종이 잘 진행되어 감염 관리가 된다면 일부 국가에서는 국내 경제 활동의 회복이 나타날 수 있으며 미국이 진행하는 대규모 부양책은 글로벌 경제 회복을 자극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도 내놓았지만 글로벌 관광 산업 부문은 2023년까지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았음
- ▶ 코로나19로 인해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국가 부채 수준은 평균적으로 GDP대비 7% 썩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GDP대비 10%에 가까운 재정 부양을 실시하였기 때문임(그래도 GDP대비 17%의 지출을 한 유럽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 이렇게 증가한 공공부채와 재정 적자가 향후에는 각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안정, 회복, 성장의 지원을 위해서 지금 당장은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음. 재정정책이 소모적인 부분으로 흘러가지 않고 신뢰성을 바탕으로 적절히 집행된다면 국가 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를 과도하게 의식하는 것보다는 지출이 낮다는 입장임



## 인도네시아 국영 2차전지 개발 기업 설립



###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오던 국영 전기차량용 배터리 사업자의 설립을 지난주에 발표하였음. CATL 및 LG화학의 투자를 협력사업으로 하여 Indonesia Battery Holding은 인도네시아의 원재료 채굴에서부터 배터리 생산 유통까지의 전체 공급망을 담당하게 될 예정임

-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기차용 배터리를 제조하는 국영기업을 지난 금요일(3/26) 설립하였음. PT Indonesia Battery Holding이라고 명명되는 이 기업은 4개 국영기업들이 지분을 출자하였으며, 국영 광산기업인 MIND ID, 채굴기업인 Aneka Tambnag(Antam), 석유 가스 거대 기업인 Pertamina, 그리고 전력 독점기업인 PLN이 각각 25%씩 출자하였음. 이번 출범으로 1년여 간에 걸친 준비 과정이 마무리되었으며 전기차 배터리를 통해서 인도네시아가 그린 경제로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더욱 환경 친화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국영기업부 장관은 말하였음.
- 국영기업부 차관은 Indonesia Battery Holding이 2030년까지 140GWh 규모의 배터리를 생산해낼 것이며 이중 50Gwh만큼의 배터리를 수출하는 물량이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해당 기업은 니켈 채굴 및 제련, 배터리 제조 및 유통까지의 전체 공급망을 책임지게 될 것임
- 장관은 Indonesia Battery Holding이 현재 중국계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 및 대한민국 화학업체인 LG 화학 등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다고 하였음. 이들 두 기업들은 전기차 배터리를 제조하는 것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임. CATL은 50억 달러, LG 화학은 130~170억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Indonesia Battery Holding의 파트너십 규모는 최대 22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초대형 투자 협력 건임
- 장관은 CATL과 LG화학이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하고, 인도네시아 기업들은 전기 오토바이용 배터리를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음. 장관은 이들 외에도 다른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열려있다고 말하였음.



## 중앙은행, 미국의 부양책이 인도네시아 경제에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



### ❖ 요약 및 시사점

미국 정부가 통과시킨 경제 부양책이 경제 주체들의 소비를 증진시키고 소비여력을 회복시키는 방향을 집행되면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거시경제 부문에서는 소비재의 수출 증가에 따른 관련 제조산업 및 수출 기업들의 회복을 전망하였음. 제조 및 수출 부문의 개선이 다시 국내 소비, 투자를 증진 시켜주며 승수효과를 낼 것

- 3월 17일에 통과된 1.9조 달러 규모의 경제 부양책이 실행되기 시작하면서 인도네시아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인도네시아 거시경제 정책 부문장이 말하였음. 올해 1분기 중에 추진되는 2~3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관련 추가 재정 부양책도 미국 의회에서 승인이 난다면 인도네시아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았음.
- 중앙은행의 거시경제 부문장은 해당 부양책이 미국의 경제를 지난해의 충격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데 가장 먼저 역할을 하겠지만 해당 프로그램이 미국의 민간 부문과 노동자들을 지원하면서 해당 부문의 소비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해줄 것이고, 이것이 인도네시아가 미국이 필요로하는 소비재를 수출하는 것을 늘릴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임.
- 그는 인도네시아가 미국의 수입 요건들을 충족할 수 있으며 수출이 증가하면 제조업 부문에서부터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보았음. 가격과 물량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회복 모멘텀을 자산화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의 생산자들과 수출업자들이 기회를 활용한다면 인도네시아 국내 경제에서도 승수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임.



## 국영기업부, 투명한 국영자본 조달 규칙 마련



### ❖ 요약 및 시사점

국영기업부는 장관령을 통해서 국영기업에 대한 국가의 자본 투입을 관리 감독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음. 국영기업들에 대한 자본 투입 필요성 및 효율성과 관련하여 제출 자료 등을 통해서 이해관계자들이 사업에 대해 판단하고 사후 관리까지 가능하도록 목적성을 분명히하는 방향으로 추진함

- 국영기업부(BUMN)은 국영기업들에 대해 국가 자본을 투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자본 할당 계획 및 운영 계획 등을 제안함에 있어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하는 장관령(PM)을 발표하였음. 국영기업부 장관은 해당 규정을 통해 국가가 자본을 투입해주는 것을 더욱 투명하고 이해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면서, 규칙에 근거한 국영기업에 대한 국가 자본 투입 건들은 쉽게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하였음.
- 투명성과 이해가능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영기업부는 할당과 감독, 그리고 위반 시에 부과되는 벌금 조항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구성하였음. 예산 배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영 자본은 사업을 수행하거나, 구조조정을 하는 등의 용도에 한정하여 배정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장관이 직접 자금의 할당과 관련한 프로세스들을 감독하기로 하였음.
- 국영기업부, 관계기관, 국영기업, 감독기구 등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국영기업들이 사업 전략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 국영 자본의 투입 긴급성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를 통해 과정이 감춰진 상태로 진행되던 것들이 드러나고 국영기업들의 지배구조가 개선되며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임.



## 재무부, 2021년 경제회복을 위한 조치 가속화



### ❖ 요약 및 시사점

재무장관은 대규모 국가 예산을 편성한 것에 더해 투자 유치를 위한 개혁을 지속하고, 중앙은행/금융감독청은 민간 부문의 금융 활성화를 지원하며, 산업계를 위한 정책 준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음. 정책 준비와 금융지원, 산업계의 활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하였음

- 재무장관은 2021년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통해서 경제 회복을 더욱 가속화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하였음. 장관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들의 복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국가 예산이라는 수단 뿐만 아니라 대통령, 경제조정장관 등 투자활동과 관련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부의 노력을 병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일자리 창출 법안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하였음.
- 부처간의 협력에 더해 중앙은행, 금융감독청, 예금보험공사 등의 이해관계자들과 정부가 함께 국가 경제를 복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강건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하였음. 국가 예산 만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민간 금융 부문의 자본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이 나서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임.
- 또한 장관은 정부 및 관계기관 뿐만 아니라 사회 및 산업계가 경제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사회 및 산업계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모니터링하고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작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하였음.
- 재무장관은 2021년에 인도네시아 경제가 4.5~5.3% 범위의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시각을 나타냈음.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보건 부문에 대해서 2019년 113조 루피아 대비 크게 예산을 늘린 309.6조 루피어를 편성하였다고 말하였음. 진단 및 추적검사에 93조 루피어를 투입하며, 치료 비용으로 32.3조 루피어를, 의료인력 지원에 7.2조 루피아, 백신 접종에 36조 루피아 등을 편성하였음.



## 재무부, 백신 접종을 통해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 개선될 것으로 기대



### ❖ 요약 및 시사점

재무부는 1.8억명에 대한 3.6억 도즈 수준의 백신을 확보하고 접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올해 예산을 마련해둔다는 방침임. 실제 접종은 내년말까지 되어야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조기에 세수수입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접종을 진행하여 경제활동을 가속하면 선순환이 달성된다고 강조하고 있음

- 재무부의 재정 지출 담당관인 Kunta wibawa Dasa Nugraha는 1억 8,150만 명의 인도네시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백신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음. 1억 8,150만 명의 인도네시아 국민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을 달성하면 경제 활동의 회복이 빨라질 수 있음
- Nugraha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158.18조 루피아의 금액을 2021년 백신 접종을 위해 책정하였으며 1억 8,150만명을 위해 3.6억 도즈 물량을 확보하여 2차례의 접종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음. 그는 올해 국가 재정은 2,750조 루피아의 재정 지출 소요에 대해서 1,229.6조 루피아의 세수 수입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로 하였다고 하였음. 백신접종은 2022년 말까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우선 올해의 재정에서 관련 예산을 마련해둔다는 계획임.
- 현재 정부의 세수 진도율은 1월에 석유 및 가스 부문 세금 2.3조 루피아와 이외 부문 66.1조 루피아를 통해 68.5조 루피아의 세수 수입이 달성되었지만, 납세자들이 연간 세금 환급 신고를 통해 3~4월에 세수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납세자들이 세금 환급 신고를 빠르게 진행하여 세수 확보가 빠르게 진행될수록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마련이 빨라지고 접종 및 경제 회복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전망하였음.
- 한편, 보건부의 백신 접종 담당인 Siti Nadia Tarmizi는 사람들에게 스스로와 가족들 그리고 주위 이웃들을 지키기 위해 백신 접종 준비를 해달라고 촉구하였음. 그는 집단 면역이 인도네시아를 코로나19 위기에서 해결해줄 것이라고 하면서 집단 면역이 달성되어 경제 활동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하였음. 이러한 집단 면역으로 나아가는 것이 세금 납부자들이 바라는 것이라고 덧붙였음.